

김철우 군수 “가족과 함께 여가 즐기는 보성의 삶” 일상으로

보성군, 보성복합커뮤니티센터·별교문화복합센터 건립 박차

민선 8기 보성군의 여가 문화 생활 인프라에 새 지평을 연다!

보성군은 군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생활 문화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준공을 앞둔 ‘보성군복합커뮤니티센터’,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별교문화복합센터’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 두 복합센터는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닌, 보성군민의 문화·체육·가족 돌봄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 보성의 중심, ‘복합커뮤니티센터’... 군민의 삶이 모이는 랜드마크

보성을 보성의 일원에 총 410여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보성군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16,154㎡(지하 2층~지상 7층)에 달하는 대형 시설로, 2025년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볼링장, △롤러스케이팅장, △작은도서관, △보성소리 공연장, △가족센터(키즈카페, 공동육아나눔터), △의화동, △생활문화센터, △공영주차장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군민의 일상과 문화를 한 곳에 녹여낸 ‘올인원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VR 체험 기반 스마트체육관과 190석 규모의 보성소리공연장 등 보성만의 색깔을 담은 특화 콘텐츠는 향후 지역 관광과 청년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영장부터 영화관까지’... 별교, 문화복합도시로 도약
별교읍 회정리 일원에 건립 중인 별교 문화복합센터는 연면적 10,524㎡(지상 3층, 3개 동) 규모로, 총 420여 명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당 시설은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작은영화관, △아이돌분센터,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농촌중심지 활성화 복합 공간, △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5년 말까지 외부 및 내부 마감공사를 마치고, 2026년 5월 최종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아이돌분센터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은 별교읍권 생활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 여가 생활의 새로운 시대... 보성의 균형성장 마중물

지금까지 보성은 ‘녹차수도’로서의 명성과 함께 농업·관광 중심의 도시로 주목받아왔다. 복합문화센터들의 건립은 ‘보성도 여가와 문화 도시’라는 새로운 인식 전환을 이끌고 있다.

아울러, 이 두 센터는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군정이 위치한 보성읍, 인

구 밀집 지역인 별교읍을 중심으로 동·서부 균형 있는 여가 인프라 확충과 세대 통합형 공간 조성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제는 보성에서도 퇴근 후 가족과 함께 볼링을 즐기고, 주말엔 아이들과 롤러장·VR 체험, 별교에선 수영장과 작은 영화관까지 누릴 수 있는 균형 잡힌 문화복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변화된 보성의 삶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동안 알차게 준비해 온 만큼, 군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사업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윤기 기자



장흥군, 전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실시

전문가 초청, 실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체계적 역량 강화

장흥군은 2일 오전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주임교수이자 재단법인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송창영 교수가 맡았다.

송창영 교수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론과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 사

건 예방 방안, 재난에 대처하는 자세 등에 대해 강의하였으며 관리자의 법적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알고 준비하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군민과 직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장흥군 제공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일정 기간 한 지역에 머물며 현지인처럼 살아가는 전라남도의 장기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 규모는 1~2인으로 구성된 1팀 내외다. 참여자에게는 체류 기간 중 숙박비, 식비, 체험활동비 등 하루 최대 10만 원이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광양에서 7박 8일 이상 체류할 수 있고 ▲머무는 동안 경험한 광양관광의 매력을 SNS를 통해 효과적으로

광양시,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 추가 모집

7박 8일 체류 여행 가능한 SNS 능통자 대상... 최대 10만원 지원

홍보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전남·광주 거주자 제외)의 SNS 활용 능통자다.

시는 여행작가, 유튜브, 파워블로거 등 SNS 활용 능력이 뛰어난 인플루언서를 우대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참여자에게는 여행 후기 작성, 광양의 숨은 명소 소개 등의 과제를 부여해 지역 관광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험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관광지의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모니터링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정책 피드백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7월 14일까지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hwa16@korea.kr)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이런주 광양시 관광과장은 “진정한 여행은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며 살아보는 데 있다”며 “천혜의 자연과 다채로운 먹거리를 지닌 광양에서 현지인처럼 체류하며,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의 숨은 매력을 널리 전파할 인플루언서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체류형 여행 프로젝트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영암군보건소,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지역 밀착형 건강서비스 등 우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영암군보건소가 3일 보건복지부 주관 ‘제17회 지방자치단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전국 지자체의 주민 건강 증진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수여되는 것으로, 영암군은 지역 밀착형 건강서비스, 통합건강관리 모델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영암군보건소는 주민 건강을 위해서 △영암군민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찾아가는 사업장 one plus사업 △방문 건강관

리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사업 등 다양한 통합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어르신들의 근감소증 관리를 위한 ‘영당이거여상실증 회복프로그램’은 찾아가는 통합건강서비스 인프라, 생활터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연계 건강플랫폼 등 다양한 가치를 충족하는 건강정책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동시에 영암군보건소는 다양한 협력 기관과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집중 관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지역사회 기반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박수희 영암군보건소장은 “영암군민의 건강 수요에 맞춤형 건강관리와 예방 중

심의 보건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번 우수기관 표창을 계기로 더 많은 영암군민이 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구례군, 신규농업인 버섯 재배기술 교육 성공적 마무리

다양한 버섯 재배 실습과 방제 교육으로 실전 능력 향상

전남 구례군은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버섯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30여 명이 참여해 기능성 버섯 재배, 병해충 방제, 스마트팜 활용, 마케팅 전략 등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았다.

교육생 중 한 명은 “이론뿐 아니라 직

접 배지를 만들고, 재배해 보는 실습이 매우 도움이 됐다”며 “교육을 통해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버섯반 교육은 신규농업인의 농업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례군은 귀농인의 안정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